투어 번호
LKZC7TQ6G4

아시아의 잊을 수 없는 진주 (17일)

17일 · 16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7일 자동차 여행 투어는 완전히 갖춘 모터홈과 전문 운전 가이드를 동반하여 스리랑카의 서쪽 해변에서 문화삼각지대, 산악 지역, 남쪽 해안까지 전역을 아우릅니다. 네고롐보에서 시작하여 칼피티야와 윌파투를 거쳐 돌고래 관찰과 야생동물 사파리를 즐기고, 고대 왕도인 아누라다푸라와 폴론나루와, 바위 요새 시기리야, 담불라 석굴 사원들을 방문합니다.

이후 동쪽 해변 파시쿠다로 이동한 후 산악 지역의 캔디(스리랑카의 마지막 왕도)와 식민지 시대 거리가 남아 있는 누와라엘리야, 그 주변의 차 재배지를 거쳐갑니다. 마지막 구간은 엘라와 얄라 국립공원을 거쳐 키린다와 갈레의 해변에서 마무리되며, 네덜란드 요새는 도보로 탐방합니다.

여행객들은 이 한 번의 여정으로 섬의 광활한 풍경, 역사, 야생동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적, 바위 위의 궁전, 열대우림과 초원 국립공원, 차 농장, 황금빛 모래해변. 모터홈과 일정이 비공개 개인 투어이므로 속도와 정차 지점은 그룹을 위해서만 설정됩니다.

연료,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운전 가이드의 숙박비는 전액 포함되며, 항공권, 식사, 입장료, 음료, 개인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면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맞이하여 네곰보까지 안내합니다.



네곰보

시간이 허락되면 숙박 전에 네곰보 시내를 둘러볼 기회가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 네곰보 → 칼피티야 → 윌파투

이른 아침 출발하여 날씨가 허락하면 칼피티야에서 돌핀 와칭을 즐긴 후, 윌파투로 이동해 모터홈 숙박의 첫 밤을 보냅니다.

칼피티야 돌핀 와칭

보트를 타고 나가 자연 서식지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기회를 가지며, 숙련된 자연 해설가가 동행하여 돌고래 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 투어는 돌고래와 그 서식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운영됩니다.

Day 3 윌파투

이날은 윌파투 국립공원 사파리에 시간을 보내며, 나머지 시간은 캠프사이트에서 자유롭게 보냅니다.



윌파투 국립공원 사파리

세 시간 동안 공원을 탐험하는 사파리로, 이 공원은 빗물이 모여 형성된 모래 가장자리의 자연 저수지인 '윌루스(willus)'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스리랑카 코끼리, 레오파드, 늘보곰, 스포티드 디어, 버펄로, 삼바 사슴, 몽구스를 비롯해 약 30종의 포유류와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Rehman Abubakr · CC BY-SA 4.0

Day 4 윌파투 → 아누라다푸라 → 윌파투

당일치기로 아누라다푸라를 방문하여 스리랑카 최초의 수도였던 유적지를 둘러본 후, 다시 윌파투로 돌아와 밤을 보냅니다.



아누라다푸라 고대 도시

이 유적 도시는 10세기까지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리랑카의 수도였으며, 넓은 지역에 파고다, 승원 건물, 연못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요 명소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와나라마, 스리 마하 보디 성수, 그리고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이 있습니다.

Thisaru Tharuka · CC BY-SA 4.0

Day 5 윌파투 → 하바라나 → 담불라

담불라로 가는 여정 중 하바라나에서 마을 투어로 잠시 쉬어갑니다.

하바라나 마을 투어

하바라나는 전통적인 마을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소달구지를 타고 둘러보고 고요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카타마란 사파리도 함께 체험합니다. 투어는 논밭을 지나며 전통 스리랑카 요리 시연이 포함되고, 연잎에 담긴 가정식 점심으로 마무리됩니다.

Day 6 담불라 → 시기리야 → 담불라

이날은 시기리야를 방문한 후 다시 담불라로 돌아와 밤을 보냅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리야는 카샤파 왕의 요새였으며, 사자의 발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치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이 바위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오르는 길에는 유명한 고대 벽화,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그리고 정상의 궁전 유적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Wrobell · CC BY-SA 3.0

Day 7 담불라

이날은 황금 석굴 사원을 방문한 후 다시 캠프사이트로 돌아옵니다.

담불라 황금 석굴 사원

이 석굴 사원은 기원전 1세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며, 신성한 왕의 석굴과 대왕의 석굴을 포함한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부처의 생애를 묘사한 고대 벽화와 수백 개의 불상 및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커다란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Day 8 담불라 → 파시쿠다

동부 해안으로 가는 길은 스리랑카의 두 번째 고대 수도였던 폴론나루와를 지나갑니다.



폴론나루와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는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수도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유적 중 주요 명소로는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욕조,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이 도시의 황금기로 기억되는 파라크라마바후 왕과 관련된 조각상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9 파시쿠다

파시쿠다 해변에서 자유로운 하루를 보내며, 더 둘러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트린코말리로의 선택 관광도 가능합니다.

파시쿠다 해변

이날은 해변에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자유 시간으로 남겨둡니다.



트린코말리

선택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트린코말리 시내를 둘러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Kondephy · CC BY-SA 4.0

Day 10 파시쿠다 → 캔디

여정은 캔디로 이어지며, 이날은 불치사,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그리고 저녁 문화 공연 관람이 포함됩니다.



불치사(佛齒寺)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사원은 16세기에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은 붉은색, 크림색, 검정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홀과 통로를 지나며, 곳곳에서 조각된 기둥과 황금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A.Savin · FAL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설립된 이 식물원은 넓은 부지에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 이상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볼거리로는 캐논볼 트리, 현수교, 미로 정원,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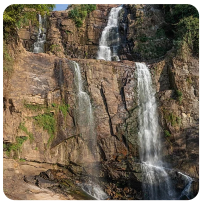
캔디 문화 공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저녁 공연에서는 불의 춤, 칼의 춤, 북소리에 맞춘 캔디안 댄스 등 스리랑카의 전통 공연 예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11 캔디 → 누와라엘리야

누와라엘리야로 가는 길에는 람보다 폭포에서 잠시 멈추고, 실제로 운영 중인 차 공장과 농장을 방문합니다.



람보다 폭포

람보다 엘라는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로, 푸셀라와 인근에 위치하며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간 구역은 다리 근처 A5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으며, 상단 구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다리 앞의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폭포와 주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A.Savin · FAL

차 공장 및 농장

이곳에서는 실론 티가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차는 1824년 영국인들에 의해 처음 중국에서 실론으로 들어와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에 심어졌으며, 이후 1852년 제임스 테일러가 도착하여 캔디 인근 룰레콘데라 농장에서 상업적 차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Day 12 누와라엘리야

이른 아침 도시락을 챙겨 출발하여 호튼 플레인스를 트레킹하고, 저녁에는 누와라엘리야 시내 투어가 이어집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 인근에 위치한 이 공원은 고산 초원과 운무림으로 유명합니다. 트레킹은 월드 엔드라는 절벽까지 이어져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하며, 베이커 폭포를 지나는 동안 고유종 야생동물을 만나고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누와라엘리야 시내 투어

차 산지의 중심, 고지대에 자리한 누와라엘리야는 영국인들이 영국의 전형적인 전원 마을을 재현하기 위해 건설한 곳으로, 조지안 양식과 퀸 앤 양식의 주택, 잘 관리된 잔디밭, 성공회 교회, 골프장, 공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13 누와라엘리야 → 엘라 → 키린다

키린다로 향하는 남쪽 여정 중 엘라에 들러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와 명소들을 둘러봅니다.



엘라

이곳에서는 선명한 초록빛 차밭과 바위 지형을 지나며,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책은 나인 아치 브리지를 가로질러 독특한 루프형 선로 설계로 유명한 데모다라 기차역에서 마무리됩니다.

Dan arndt · CC BY-SA 4.0

Day 14 키린다 → 얄라 → 키린다

이른 아침 지프 사파리로 얄라 국립공원을 탐험한 후 나머지 하루는 키린다에서 보냅니다.



얄라 국립공원 사파리

세 시간 동안 섬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인 얄라를 둘러보는 사파리로, 남동부 해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레오파드, 야생 물소, 늘보곰,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15 키린다 → 갈레

여정은 갈레로 이어져 해변에서 머물게 되며, 도착 즉시 요새 지역 시내 투어가 이어집니다.



갈레 요새

1663년부터 네덜란드인들이 건설한 이 36헥타르 규모의 요새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성벽과 거리를 걸으며 해안 풍경과 어우러진 식민지 시대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6 갈레

이날은 갈레 해변에서 자유롭게 보내는 하루입니다.



갈레 해변

이날은 해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유 일정으로 남겨둡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7 갈레 → 공항

아침 식사 후, 공항으로 이동하며 투어가 마무리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Fully-equipped motorhome.
-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cost of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Except for Credit Card Charges)

미포함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Tips & Portages.
- Cost of Beverages
- Meals
- Entrance fees where not specified.